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광주 온 아마존 족장의 호소 ▶2
오락가락 입시…중3 교실 대혼란 ▶6
추신수 '100-100클럽' 가입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562호 1판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음력 7월 23일)

安신당 내년 2월 창당 추진

전국 지지세력 조직화 착수…내년 6·4 지방선거 공천

독자세력화를 표방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빠른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내년 2월을 목표로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주축이 되어 광주·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조직화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28일 안 의원 측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추석 이전 정당 준비단계인 '정치결사체'를 구성, 오는 10·30 재·보궐선거를 치른 뒤 내년 2월께는 신당을 띄워 6·4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공천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전국 조직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안 의원을 자발적으로 지지했던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당 창당 이전 단계인 정치결사체 구성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회 조직팀 중 호남지역 담당자 3명은 지난 27일 전주와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안 의원의 호남지역 지지단체인 광주시민포럼과 진심포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안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설명하고, 창당 이전 정치결사체 구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럼 관계자들은 안 의원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은 호남뿐 아니라 부산 등 영남지역에도 최근 조직팀을 내려보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책네트워크 내일'에는 정책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와 인재영입 및 조직·정무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위원회가 있으며, 기획위원회 조직팀에는 각 권역별 담당자들이 활동중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는 10·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창당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정치결사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중"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대선 당시 안 의원의 자발적 지지세력이었던 호남지역 포럼들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안 의원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외의 다른 정치세력들로까지 확장을 꾀해 내년 창당 이전까지 정치세력을 최대한 넓혀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도 다음달 1일 부산을 시작으로 수원과 인천 등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군 제 1 전투비행단 소속 훈련기 T-50이 28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신야촌 일대에서 추락, 탑승한 조종사 2명이 숨졌다. 꼬리 부분만 남아 있는 훈련기 옆에서 공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와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군 T-50 훈련기 광주서 추락 2명 사망

광산구 신촌동 극락천변

훈련 중이던 공군의 초음속 훈련기 T-50 1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군공항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8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신야촌 일대에서 훈련 중인 공군 제 1 전투비행단 소속 훈련기 T-50이 추락, 탑승하고 있던 노세권(34·공사 50기) 소령과 정진규(35·공사 51기) 대위가 숨졌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조종사는 낙하산과 함께 기체 인근에서 발견됐다.

훈련기는 비행훈련 중 활주로 동쪽 1.6㎞ 지점에서 추락해 네 동강 났다. 기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불에 탔다.

폐기물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임도환(48)씨는 "낮게 날던 훈련기 기체가 바닥을 들이받더니 빙그르르 돌면서 공중에서 폭발했고 바로 추락해 산산조각났다"면서 "두 명의 조종사가 있었을텐데 폭발 전에는 빈 낙하산 하나만 펼쳐져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을 위해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량한 T-50B가 지난해 추락한 것을 제외하면 T-50이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수사

국정원, 통합진보당 부위원장 등 3명 체포…10여곳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이 의원 등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수사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이 고문 가족은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이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연합뉴스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9월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알 림

디지털시대 미디어 홍보 워크숍

내일 신청접수 마감합니다

공들여 작성한 보도자료, 과연 얼마나 반영 되고 있습니까?
매일 보도자료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미디어홍보는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껍질뿐인 보도자료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 또한 오히려 자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홍보의 핵심을 관통해 만들어진 한편의 보도자료가 회사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마련한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마케팅 강좌는 홍보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 홍보전문가 및 현직 기자가 참여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광주, 전남·북 기관·단체·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9월 26일~27일(1박2일)
9월26일 오전 9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단체출발
●장 소 : 충남 보령 웨스토피아 리조트
●워크숍 내용 : 디지털시대 홍보전략을 다시 세워라
보도 자료 작성 실무. 보도 사진 촬영 실무
●대 상 : 광주 전남·북 기관·단체·기업 홍보담당자
●원서접수 및 등록기간 : 2013년 8월 30일(금) 60명 선착순 마감
●문의 및 접수 : 광주일보 프로젝트팀 062)220-0555

61 창사 61주년 光州日報社